

영화를 이용한 정신질환교육이 중·고등학교 교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김유나¹ · 서지민²

부산시립정신병원 낮병원 수간호사¹,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²

Effects of Mental Illness Education Using Movies on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toward Mental Illness

Kim, Yoo-Na¹ · Seo, Ji-Min²

¹Head Nurse, Day Care Center, Busan Metropolitan Mental Hospital, ²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effects of 'mental illness education using movies' on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held b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66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33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3 in the control group. The 'mental illness education using movies' was given to the experimental group twice a week for two weeks.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were measured using the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Questionnaire developed by Park, Paik, and Kwack (1995). **Results:** After the mental illness educ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 and control group for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concepts toward mental illness ($t=7.10, p<.001$). **Conclusion:** 'Mental illness education using movies' has limited effects on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toward mental ill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further research is needed with a revised contents of 'the mental illness education using movies' if perceptions and attitudes are to be changed.

Key Words: Health knowledge, Attitude, Perception, Mental health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에 속하는 중·고등학생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성적 욕구의 증가, 정체성 혼란 등으로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며,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다(Jung, Sim, & Lee 1999; Lee, 2006; Rho & Kim, 1998). 성인기에 진단되는 정신질환의 상당수가 중·고등학생 때 발현

되는데(Evans et al., 2005;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KNA], 2007),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부적응 문제로 연결될 뿐 아니라 성인기 이후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Kim & Yang, 2003).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약 10%가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KNA, 2007) 최근 학생들의 자살, 비행 등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Jhi, 2004) 시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정신질환교육, 교사, 태도, 인식, 정신건강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eo, Ji-Min,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eomeo-ri, Mulgeum-eup, Yangsan 626-770, Korea. Tel: 82-51-510-8351, Fax: 82-51-510-8308, E-mail: seojimin@pusan.ac.kr

- 본 연구는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This study is a revision of master's thesis.

투고일 2010년 7월 24일 / 수정일 1차: 2010년 11월 4일, 2차: 2010년 11월 6일 /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6일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감안하면, 학생의 정신건강문제 관리에 있어서 교사의 이해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Elias & Tobias, 1996; Lim, 2001; Rutter, 1979; Waller, 2006). 그러나 중·고등학교 교사의 90.5%가 학생의 정신건강문제를 정신과의사나 상담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없으며(Lim, 2001) 20.4%만이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거나 의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Chun & Kwak, 1998), 교사들이 학생의 정신건강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은 학생의 정신건강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부족, 정신과에 대한 편견, 상담에 대한 교육 부족 등이 장애요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Chun & Kwak, 1998; Kim & Yang, 2003). 이러한 장애요인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나 예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Jung et al., 1999; Kim & Yang, 2003). 교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역할 인식은 학생의 정신건강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에게 정신질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Jung et al., 1999; Lim, 2001; Rutter, 1979).

지금까지 국내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신질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Chun & Kwak, 1998; Kim & Yang, 2003, 2005; Lim, 2001; Rho & Kim, 1998; Yu, 1976), 정신질환교육을 실시한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정신질환교육은 정신질환에 대한 원인, 증상, 경과, 치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지식과 특정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Goldman, 1988; Hong, 2006). 교육방법으로는 강의방식을 흔히 사용하며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매체를 동시에 활용하기도 한다(Kim, 2008). 다양한 영상매체 중에서 영화는 시각과 청각적 자극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우수한 자료이며(Wedding & Boyd, 2007),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고 관찰 및 대리학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크다(Jeong, 2009; Niemiec & Wedding, 2008). 따라서 책자나 유인물을 이용한 강의방법에 영화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중·고등학교 교사에게 정신질환교육을 실시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에 대한 인식과 태

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청소년 정신건강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영화를 이용한 정신질환교육을 실시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3. 연구가설

가설 1. 영화를 이용한 정신질환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원시적·초자연적 개념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영화를 이용한 정신질환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적·환경적 개념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영화를 이용한 정신질환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사회복귀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영화를 이용한 정신질환교육이 중·고등학교 교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유사실험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이다(Figure 1).

Group	Pretest	Treatment	Posttest
Exp.	O ₁	X	O ₂
Cont.	O ₁		O ₂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O₁=general characteristic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O₂=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X=mental illness education using movies (twice a week for two weeks).

Figure 1. Research design.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P광역시와 M시에 소재한 중학교 4개교와 인문

계 고등학교 3개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보건교사를 통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교사를 모집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은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교사를 대상으로 정신질환교육의 효과를 검정한 연구가 없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신질환교육의 효과를 검정한 Jung 등(1999)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산정하였고, 이 연구에서 정신질환교육의 효과크기는 하부요인별로 0.69, 0.74, 1.12였다. 이 중 가장 적은 효과크기인 .7을 기준으로 하고, 유의수준 .05, 검정력 .8일 때 독립 t-test에 필요한 표본 수는 33명이다(Cohen, 1988). 이에 탈락자를 예상하여 실험군에 37명, 대조군에 40명을 배정하였고 연구 진행과정에서 실험군 4명(거부 2명, 개인사정 2명), 대조군 7명(거부 4명, 개인사정 2명, 질병 1명)이 탈락하여 최종 대상은 실험군 33명, 대조군 33명이었다.

3. 연구도구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Park과 Kim (1983)이 현지조사에서 수집된 정신질환에 대한 의견들을 이용하여 개발한 도구를 Park, Paik과 Kwack (1995)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신질환에 대한 원시적·초자연적 개념’ 9문항,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환경적 개념’ 15문항,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사회복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관련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4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정말 그렇다’ 1점, ‘그렇다’ 2점, ‘모르겠다’ 3점,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배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질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하부요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정신질환에 대한 원시적·자연적 개념’이 .85,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환경적 개념’이 .69,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사회복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77로 나타났다.

4. 영화를 이용한 정신질환교육

1) 내용 구성

영화를 이용한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은 50분씩 4회 분량으로 구성하였다. 1회기에는 정신건강의 개념과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 및 정신건강서비스, 2~4회기에는 정신질환의 진단 기준에 따라 질환의 원인, 증상, 경과, 치료 및 예후

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교육 내용은 정신간호학 교수 1인, 정신전문간호사 1인의 자문을 얻어 수정·보완 하였다(Table 1).

2) 영화 편집

Wedding과 Boyd (2007)가 정신장애를 묘사한 영화를 정신질환별로 기술한 책을 참고로 하여 각 질환에 맞는 영화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질환별 증상과 치료방법 등이 잘 드러나는 장면을 책임연구자가 편집한 후 정신간호학 교수 1인, 정신전문간호사 1인의 자문을 얻어 수정·보완하였다. 1회기에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이 잘 나타난 영화 「청춘」을, 2회기에는 정신분열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한 영화 「Beautiful Mind」, 3회기에는 정서장애 및 불안장애에 관련된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Mr. Jones」, 「보통사람들」, 4회기에는 청소년 품행장애 및 중독에 관한 영화 「나쁜 영화」를 각 질환별 증상 위주로 영화 내용을 편집하였다(Table 1).

3) 정신질환교육의 시행

정신질환교육은 정신전문간호사와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정신과 병원에서 15년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책임연구자가 실시하였다. 중재 장소는 대상자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대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시청각 자료실을 이용하였으며 한 집단은 5~8명으로 구성하였다. 실험군에게 주 2회, 2주간 총 4회, 매회 50분의 정신질환교육을 제공하였고 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프리젠테이션, 영화, 유인물을 이용하여 교육하였다. 각 회기에는 진단분류에 따라 편집된 영화를 20~25분 동안 보여주며 설명하고, 영화 감상이 끝난 후 각 회기별 목표에 따른 토의주제를 연구자가 제시하고, 토의를 통하여 정서와 경험을 공유하였다.

5.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책임연구자가 대상자가 근무하는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참여에 동의한 교사들에게 직접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험군은 정신건강교육 1회기 시작 전에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정신질환교육 4회기 종료 직후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사전 조사 후 10~12일에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1. Contents and Movies of Mental Illness Education

Session	Theme	Content	Movie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gram orientation · Understanding mental health and mental health services · Understanding for adolesc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lcome and orientation · Concept of mental health and mental health services ·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 	The springtime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hizophren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iology, symptom, progress, prognosis, and treatments of schizophrenia 	A beautiful mind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od disorder · Anxiety disorder · Suic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iology, symptom, progress, prognosis, and treatment of mood disorder and anxiety disorder ·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commit suicide 	Mr. Jones Ordinary people As good as it gets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duct disorder, substance-related disorder, and cyber addi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iology, symptom, progress, prognosis, and treatment of conduct disorder, substance-related disorder, and cyber addiction 	Bad movie

6. 윤리적 고려

책임연구자가 대상자가 근무하는 학교를 방문하여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진행에 대한 승인을 받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책임연구자가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절차를 설명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연구참여 의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참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또한 수집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연구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7.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χ^2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 영화를 이용한 정신질환교육이 중·고등학교 교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t-test로 분석하였다.

8. 연구의 제한점

- 실험군과 대조군을 임의로 배정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 실험군은 자신이 실험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중재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책임연구자가 대상자가 실험군과 대조군 중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 알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Hawthon 효과와 Halo 효과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 대조군에게 교육이 전혀 제공되지 않아 영화를 이용한 정신질환교육이 기존의 강의식 교육과 비교하여 보다 효과적인지 검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 측정도구에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원인과 약물치료 등 지식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없어 정신질환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실험군은 남자가 63.6%, 여자가 36.4%였고, 대조군은 남자가 72.7%, 여자가 27.3%였다. 실험군은 41세 이상이

60.6%, 40세 이하가 39.4%였고, 대조군은 41세 이상이 84.4%, 40세 이하가 15.2%로 나타났다. 실험군은 기혼이 78.8%였고, 대조군은 기혼이 93.9%로 대부분이 기혼자였다. 실험군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60.6%였고, 대조군은 대졸이 63.6%로 나타났다. 실험군은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51.5%, 대조군은 54.5%로 나타났다. 실험군에서 교직경력 이 21년 이상인 대상자가 54.5%였고, 대조군에서는 69.8%였다. 실험군은 중학교 교사가 33.3%, 고등학교 교사가 66.7%였고, 대조군은 중학교 교사가 24.2%, 고등학교 교사가 75.8%로 고등학교 교사가 대부분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정 결과 성별($\chi^2=0.62, p=.428$), 연령($\chi^2=6.28, p=.099$), 결혼상태($\chi^2=3.22, p=.149$), 교육정도($\chi^2=0.06, p=.800$), 종교($\chi^2=1.69, p=.791$), 교직경력($\chi^2=9.38, p=.153$), 근무지($\chi^2=0.66, p=.415$)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2).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연구대상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사전 점수

는 총점 170점 만점에 평균 116.8 ± 9.33 이었다. 하부요인 별로 살펴보면 정신질환에 대한 원시적·자연적 개념은 45점 만점에 평균 40.6 ± 3.68 점이었고,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환경적 개념은 75점 만점에 평균 41.3 ± 5.68 점이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사회복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50점 만점에 평균 35.0 ± 4.69 점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단 간 동질성 검정 결과, 총 점수($t=0.02, p=.979$), 정신질환에 대한 원시적·초자연적 개념($t=-0.10, p=.921$),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환경적 개념($t=-0.28, p=.780$),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사회복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t=0.47, p=.639$) 모두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3).

3. 영화를 이용한 정신질환교육의 효과

영화를 이용한 정신질환교육이 중·고등학교 교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정신질환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중재 전 평균 116.8점에서 중재 후 평균 130.0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중재 전 평균 116.8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66)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 (n=33)		Control group (n=33)		χ^2	p
		n (%)	n (%)	n (%)	n (%)		
Gender	Male	21 (63.6)	24 (72.7)	0.62	.428		
	Female	12 (36.4)	9 (27.3)				
Age (year)	≤ 40	13 (39.4)	5 (15.2)	6.28	.099		
	≥ 41	20 (60.6)	28 (84.8)				
Marital status	Married	26 (78.8)	31 (93.9)	3.22	.149 [†]		
	Unmarried	7 (21.2)	2 (6.1)				
Educational level	≤ University	20 (60.6)	21 (63.6)	0.06	.800		
	≥ Graduate school	13 (39.4)	12 (36.4)				
Religion	Have	17 (51.5)	18 (54.5)	1.69	.791		
	Haven't	16 (48.5)	15 (45.5)				
Career (year)	≤ 10	12 (36.4)	5 (15.1)	3.99	.147 [†]		
	11~20	3 (9.1)	5 (15.1)				
	≥ 21	18 (54.5)	23 (69.8)				
Workplace	Middle school	11 (33.3)	8 (24.2)	0.66	.415		
	High school	22 (66.7)	25 (75.8)				

[†]Fisher's exact test.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N=66)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33)	Control group (n=33)	t	p
	M±SD	M±SD		
Primitive, supernatural concepts	40.5±3.64	40.6±3.72	-0.10	.921
Psychological, environmental concepts	41.1±6.22	41.5±5.14	-0.28	.780
Prejudice, negative attitudes	35.2±4.52	34.7±4.86	0.47	.639
Total	116.8±10.33	116.8±8.32	0.02	.979

Table 4. Effects of Mental Illness Education Using the Movies

(N=66)

Variables	Time	Experimental group (n=33)	Control group (n=33)	t	p
		M±SD	M±SD		
Primitive, supernatural concepts	Pretest	40.5±3.64	40.6±3.72	-1.28	.204
	Posttest	40.6±2.19	42.0±3.37		
	Difference	0.1±4.41	1.4±3.61		
Psychological, environmental concepts	Pretest	41.1±6.22	41.5±5.14	7.10	<.001
	Posttest	52.7±4.49	42.0±5.11		
	Difference	11.7±7.68	0.5±4.7		
Prejudice, negative attitudes	Pretest	35.2±4.52	34.7±4.86	0.85	.396
	Posttest	36.7±3.03	35.3±5.94		
	Difference	1.5±4.66	0.6±3.28		
Total	Pretest	116.8±10.33	116.8±8.32	4.35	<.001
	Posttest	130.0±6.22	119.2±8.19		
	Difference	13.2±11.42	2.5±8.33		

점에서 중재 후 평균 119.2점으로 증가하여 실험군의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t=4.35, p<.001$). 하부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신질환에 대한 원시적·초자연적 개념($t=-1.28, p=.204$)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사회복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t=0.85, p=.396$) 점수는 중재 후에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환경적 개념($t=7.10, p<.001$) 점수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영화를 이용한 정신질환교육이 중·고등학교 교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사전 총 점수는 170점 만점에 116.8±9.31점으로 중앙값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 정신질환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였다. 하부요인별로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원시적·초자연적 개념의 사전 점수는 45점 만점에 평균 40.6±3.65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신질환의 원인과 치료를 원시적·초자연적인 요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Park 등(1995)이 일반인과 정신과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반인군은 평균 35.8±5.11점, 보호자군은 평균 34.3±5.4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교사집단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Hwang, Kim과 Song (1988)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의 원시적 혹은 초자연적 질병개념

이 사회·경제적 변화와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 등에 의해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개념으로 변화된 결과로 생각된다.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환경적 개념에 대한 본 연구대상자의 사전 점수는 75점 만점에 평균 41.3 ± 5.66 점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내 정신질환의 원인과 치료를 심리·환경적 측면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Park 등(1995)의 연구에서도 일반인군이 평균 37.3 ± 6.88 점, 보호자군이 평균 36.8 ± 6.60 점으로 비교적 점수가 낮아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환경적 개념을 갖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Chun과 Kwak (1998)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 유발 원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환경, 스트레스, 심리적 갈등, 성적 위주의 교육환경 등 심리·환경적 요인을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사회복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사전 점수는 50점 만점에 평균 35.0 ± 4.66 점으로 중앙값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Park 등(1995)의 연구에서 나타난 일반인군의 평균 34.1 ± 5.02 점, 보호자군의 평균 34.7 ± 5.12 과 비슷한 결과였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의 가족 중에 정신병 환자가 생기면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숨기라고 할 것 같다'와 '약혼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파혼하는 것이 상책이다'는 문항에서 특히 점수가 낮았는데 이는 Lee, Kim과 Lee (2000)의 연구에서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영화를 이용한 정신질환교육은 연구대상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 하부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신질환교육 후 정신질환에 대한 원시적·초자연적 개념 점수가 유의하게 변화되지 않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원시적·초자연적 개념이 교육실시 전에 이미 상당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단기기간의 교육을 통해 유의하게 변화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질환교육이 연구대상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환경적 개념 변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이 정신질환의 원인과 치료를 심리·환경적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어졌다. 측정도구에 정신질환에 대한 생물학적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이 없어 정신질환교육이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개념 변화에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

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사회복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정신질환교육 후에 변화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증상 위주로 영화를 편집하여 사용하였고, 정신질환자의 대한 편견 및 사회복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아 중재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신질환자에게 갖는 편견은 지역사회의 가치관, 사회계층, 직업, 개인의 성격특성,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 교육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Kim, Kim, & Lee, 1988), 교육이나 계몽으로 일반인들의 이해 수준이나 질병 인식도는 나아지더라도 질병의 예후나 사회복귀 가능성, 정신질환자를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크게 변화되기 어렵다(Ahn & Lee, 1986). 이러한 요인도 실험군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사회복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기간의 교육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영화를 이용한 정신질환교육은 시각과 청각적 자극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우수한 자료이며 생각을 변화시키고 태도와 행동을 선택하게 하며 문제해결과정을 학습하는 관찰학습, 대리학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큰 영화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대상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였으며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중재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기적인 정신질환교육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환경적 개념은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으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사회복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 및 범국민적 의식 개선을 위해 편견해소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보완한 체계적인 정신질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는 영화를 이용한 정신질환교육이 중·고등학교 교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영화를 이용

한 정신질환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요인별로 살펴보면, 중재 후에 정신질환에 대한 원시적·초자연적 개념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사회복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환경적 개념은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본 연구에 적용된 영화를 이용한 정신질환교육은 교사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에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정신질환교육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구성한 정신질환교육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고등학교 교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신질환교육의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신질환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측정도구에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지식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하여 정신질환의 인식과 태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적용된 정신질환교육에 정신질환의 편견과 사회복귀에 대한 교육내용을 추가하여 교육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hn, D. H., & Lee, B. Y. (1986). Community leaders' reactions to mental disorders. *The Seoul Journal of Psychiatry*, 11(4), 281-297.
- Chun, J. S., & Kwak, Y. S. (1998). Teacher's perceptions of mental health problems in students and psychiatric consultations. *Korean Journal of Child & Adolescence Psychiatry*, 9(1), 82-90.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lias, M. J., & Tobias, S. E. (1996). *Social Problem Solving: Interventions in the schools*, New York: Guilford Press.
- Evans, D. L., Foa, E. B., Gur, R. E., Hendin, H., O'Brien, C. P., Seligman, M. P., et al. (2005). *Treating And Preventing Adolescent Mental Health Disorder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Goldman, C. R. (1988). Toward a Definition of Psychoeducation. *Hospital & Community Psychiatry*, 39, 666-668.
- Hong, J. E. (2006). *The effect of a mental health nursing program on illness knowledge, attitude, burden, and stress of parents with a mentally disordered adult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Hwang, K. H., Kim, K. I., & Song, S. S. (1988). Lay people's attitude toward illness behavior.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7(1), 80-93.
- Jeong, I. J. (2009). *The effect of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using cinema on self ident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adolescent on prob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Jhi, S. D. (2004). *A study on realities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juvenile school viol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Jung, K. H., Sim, D. S., & Lee, C. S. (1999). The effect of mental illness education on the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8, 355-368.
- Kim, C. Y., Kim, Y. S., & Lee, B. Y. (1988). The effect of psychiatric education upon the attitudes toward mental disorder.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7(1), 96-107.
- Kim, D. J. (2008). *The comparison of the effect of psychoeducation using the film or lecture on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Kim, G. A., & Yang, S. (2003). Teacher's recognition about mental health of elementary school chil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 329-339.
- Kim, G. A., & Yang, S. (2005). A study for experience and needs of mental health education in primary school teach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 362-371.
-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2007). *Neuropsychiatry*. Seoul: Joongang.
- Lee, E. H., Kim, K. J., & Lee, S. Y. (2000). The attitudes of the inhabitants of Kwangju towards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9, 495-506.
- Lee, E. S. (2006). *A study on formation of self concept of adolescents through drama therap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Lim, G. H. (2001). The analysis of teacher's perception about

- student's mental health. *A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14, 1-23.
- Niemiec, R. M., & Wedding, D. (2008). Positive psychology at the movies: using films to build virtues and character strengths. Cambridge, MA: Hogrefe & Huber Publishers.
- Park, J. W., Paik, K. C., & Kwack, Y. S. (1995). A stud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in lay people and caretaker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4, 1105-1118.
- Park, Y. C., & Kim, K. I. (1983). Community leaders'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2, 218-232.
- Rho, E. S., & Kim, S. H. (1998). A study on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opinion about mental ill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7, 398-406.
- Rutter, M. (1979). Maternal deprivation, 1972-1978: New findings, new concepts, new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0 (2), 283-305.
- Waller, R. J. (2006). *Fostering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in the classroom*.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Wedding, D., & Boyd, M. A. (2007). *Movies and mental illness: using films to understand psychopathology* (S. H. Beack, D., W. Cho, & Y. O. Han, Trans.). St. Louis: McGraw Hill College. (Original work Published 1999).
- Yu, S. J. (1976). A comparative study of attitude of teachers and general public toward mental healt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6, 1-11.